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06-13 윤익빌딩 9층 전화 : 070-8610-3520, 3530 팩스 : 02-552-4840 이메일 : bwc@koreabio.org
생물무기금지협약 홈페이지 www.bwckorea.or.kr



G-8 정상들, 2011년 제7차 생물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 공개 지지

워싱턴 -- 세계 주요 선진국 대표들은 지난 3월 15일 G-8 정상국의 기자회견에서 올해 열리는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BWC) 평가회의 참석자들에게 비확산 체제를 강화시킬 방법을 모색하자고 촉구했다.



G-8 회원국인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일본, 캐나다의 고위급 외교관들이 3월 15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G-8 외무장관들은 곧 열릴 생물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 참석자들에게 BWC의 비확산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수단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G-8 외무장관들은 이틀간의 파리 회담 끝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기술 개발의 오용 가능성과 국가적 및 비국가적 단체가 야기하는 생물무기나 독소무기의 개발 및 사용의 위험성이 국제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정상국 대표들은 2페이지 분량의 성명서에서 “우리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위험한 생물작용제의 증식과 취득, 치명적인 병원균 개발을 위한 생명과학 및 바이오기술의 고의적인 오용 등의 위

협을 감소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굳게 믿는다” 라고 밝혔다.

10가지의 주장을 담은 이 성명서는 또한 G-8 정상국들이 BWC의 신조에 따를 것임을 재확인하고, 기존의 신뢰구축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 및 이행지원국(Implementation Support Unit : ISU)처럼 현행 체제를 구성하는 기구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파리 회담이 처음에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불안 및 일본의 재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외무장관들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포함한 프랑스의 G-8 의장국 기간 중에 있을 비확산 우선순위도 논의할 예정으로, 올해 5월 프랑스 Deauville에서 열리는 G-8 연례 정상회의에서 서부 유럽 국가가 의장국을 맡게 될 것이다.

매 5년마다 열리는 생물무기금지협약 평가회의는 그 사이 기간의 협약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비확산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추천할 수 있는데, 올해 12월의 회의는 제7차 평가회의가 될 것이다.

정책 분석가인 Jonathan Tucker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이 성명서는 “너무나 긍정적이고 8명의 외무장관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과 평가회의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 일에 상당한 정치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며 이 합의문이 “별로 구체적이지는 않다” 고 지적했다.

1975년에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탄저균, 천연두균, 페스트균 같은 질병인자를 무기화하여 개발, 생산, 비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 협약의 검증 체제를 수립하려던 시도는 2001년에 미국이 6년 6개월 간의 논의 석상에서 철수함으로써 무산되었는데, 당시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합의에 대한 확신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며, 미국의 바이오디펜스 연구 및 바이오산업에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이후부터 UN은 제네바에서 매년 2회에 걸쳐 연례회의를 주재하는데, 여기에서 전문가들과 BWC 회원국 대표들이 특정 주제를 논의한다.

지난해에는 생물무기의 사용 가능성 및 고의적 혹은 자연적 질병의 대유행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 태세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이 회의는 제4회이자 마지막 “회기간 절차(intersessional process)” 였다.

이 사안들은 2006년의 제6차 평가회의 및 다가올 2011년의 제7차 평가회의에서 일괄 처리되는데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으로 구성된 G-8 그룹의 외무장관들에 따르면, 올해의 회의는 “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공동의 보안을 추구하는 데에 결정적인 이 기구의 권위 및 유관성의 증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고 밝혔다.

기존의 회기간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외무장관들은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신뢰와 순응을 강화시킬 보다 효율적인 방법” 을 시도하는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에 회원국들을 끌어들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는데, 동 성명서는 이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이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Tucker는 현행 활동 프로그램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

에 많은 생물무기금지협약 회원국들이 이 연례회의 절차의 개편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하며, 부시 행정부가 연례회의의 성격을 회원국들 사이의 정보 교환 정도로 제한하고 어떠한 결정 권한도 배제시키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그 절차를 구속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Tucker에 따르면, 매년 토론 주제는 국가들의 협약 준수 여부 및 생물테러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Tucker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는 그것들을 BWC가 현재 당면한 핵심 문제라고 규정짓지 않을 것이다. 모든 회원국이 협약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확신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지된 공격 활동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국가적 바이오디펜스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것 등이다” 라고 *Global Security Newswire(GSN)*에 밝혔다.

외무장관들은 평가회의로써 “협약의 임무와 자원을 검토 후 협약 이행지원국(ISU)의 개편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3인으로 구성되며 제네바의 유엔군축사무소(U.N. Disarmament Affairs Office) 내에 위치한 이행지원국(ISU)의 수립 권한은 올해 평가회의와 함께 만료되는데, 동 이행지원국의 역할은 협약의 이행지원뿐 아니라 회기간 회의에도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G-8 정상국들은 또한 비확산 규정 이행에 대한 신뢰 구축조치(CBM)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것을 생물무기금지협약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생물작용제를 취급하는 연구 기관에 대한 자료, 전염병의 대유행 및 독소에 의한 유사 상황에 대한 정보 및 백신 생산 시설에 대한 신고 등의 광범위

한 정보를 포함한다.

유엔 생물무기금지협약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에 163개 회원국들 가운데 단지 72개 국가만 연례 신뢰구축조치(CBM) 보고서를 제출했고, 72개 보고서 가운데 단지 15개만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미국이 제출한 보고서는 보다 분량이 많은 기밀문서 중 일부인 공개 버전이다.

Tucker에 따르면, 비정부 그룹들은 신뢰구축조치(CBM) 보고서 형식의 갱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 3회에 걸쳐 만남을 가졌는데 이것은 1986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1991년에 마지막으로 갱신된 바 있다고 전하며, 평가회의가 실무대책팀을 구성하여 신뢰구축조치(CBM) 보고서를 보다 유익하고 쉽게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 회원국들에게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8 외무장관들은 특히, 지난 10년간 크게 확장된 대학 연구소 및 바이오기업 등을 이 협약 이행에 보다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며, “생명윤리에 관한 이중용도(dual-use)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

여 생명과학 발전 및 관련자들의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생명과학은 식물, 동물, 인간과 같이 살아 있는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모든 연구를 망라한다.

결국, G-8 정상국 대표들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의 보편화는 필수불가결하다” 라고 말하면서, 생물무기금지협약의 회원수를 확대하기 위해 분발하기로 했다.

Tucker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이 여타의 비확산 조약들만큼 널리 채택되고 있지 못하다고 GSN에 밝히며, 생물무기금지협약을 화학무기금지협약(Cheical Weapons Convention)과 비교하면서, 후자는 전자보다 20년 이상 늦게 1997년에 발효되었지만 오늘날 188개국의 회원수를 자랑한다고 말했다.

Tucker에 따르면, 이러한 모순의 주된 이유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이 국제적인 사무국, 곧 신규 회원국의 영입에 적극적인 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를 가지고 있는 데에 반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현재 제네바에 단지 3인으로만 구성된 이행지원국(ISU)만 가지고 있어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3. 16)

미국 회계감독국, 바이오디펜스 조율기구 수립 요구

미국 정부회계감독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GAO)은 한 보고서에서 백악관이 너무 분산되어 있는 미국 내의 생물학적 방위구상(biological defense initiatives)을 조율할 기구의 수립을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염병연구정책센터(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는 여러 연방 단체 및 20명 이상

의 정부직(political appointees)이 위험한 생물작용제의 고의적 혹은 자연적인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는 하나, 정작 “전체적인 바이오디펜스 계획을 총괄하는 책임, 권한 및 의무를 맡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다” 고 상기 보고서의 평가를 인용했다.

다양한 조합의 정부 조직들은 4가지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방위 목표인 의회 조사단이 확인한 위협인지,

예방과 보호, 감시와 탐지 및 대응과 회복이라는 목표를 미국이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데, 회계 감사관들은 일찍이 미국의 생물작용제 탐지 활동 분야의 조율 부족을 지적했었다.

상기 보고서는 중심을 이루는 기획 기관 및 총괄적인 계획이 연방의 효율적인 생물학적 방위 활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히면서, 백악관 국토안보이사회(Homeland Security Council)가 이러한 조율 기구의 수립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권고했다.

미국 정부회계감독국은 연방 정부 내의 불필요한 중복에 대하여 이 기관에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한 2010년의 법률에 따라 345페이지에 달하는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요구는 연방의 경비 절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release : 2011. 3. 3)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3. 4)

우즈베키스탄, 미국 국방위협대응국 자금 지원의 바이오디펜스 연구소 개소

Central Asia Newswire는 우즈베키스탄이 미국의 자금 지원으로 두 곳의 바이오디펜스 연구소를 개소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의 질병 발생 탐지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UzDaily.com은 페르가나 계곡(Ferghana Valley)의 안디잔(Andijan) 시와 페르가나 시에 위치한 이 두 연구소가 우즈베키스탄 및 그 밖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진단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두 시설에 대한 작업은 2010년 12월에 마무리되었는데, 이 시설의 건축 및 기술 제공 비용의 13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자금 자원은 미 국방위협대응국(U.S.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원들에게 최신 시스템의 사용 및 유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Central Asia Newswire : 2011. 3. 23)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3. 28)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안, 사적인 질병인자 바이오센서 소유 규제

San Francisco Chronicle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출된 지방자치법은 질병인자 센서(disease agent sensors)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첫 탐지기는 1,700달러, 이후 추가 기기는 개당 2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시의 공중보건부(Public Health Department)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예비 법안은 탄저균이나 야토균과 같은 병

원균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발했을 경우에는 5,000달러의 벌금 및 근거 없는 소문을 추가로 퍼뜨린 경우에는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가한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의 의장인 David Chiu가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생물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시민의 불안, 산업 붕괴, 장기적인 시설 폐쇄, 정신 건강 교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생물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 비용은 하루에 7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데, 이는 그 지역의 물 질과 사람을 모아서 분석하고 전염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수송 수단 및 다수의 사람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대책을 알맞게 분배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등 에 필요한 비용이다.

샌프란시스코 시 관계자들은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생물위협(biological threat) 탐지기는 정확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 뉴욕 시가 채택하고 있는 유사 조치를 그 근거로 내세우고, 정부의 대응 기관들이 질병 위협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an Francisco Chronicle* : 2011. 3. 22)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3. 25)

미국 전염병연구정책센터, 보다 신속한 탄저균 환경시험법 홍보

미국 전염병연구정책센터는 살아 있는 탄저균 포자의 존재 여부를 점검하는 새롭고 신속한 환경 시험법이 새로 개정된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보고서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급속변이 중합효소연쇄반응(rapid-variability polymerase chain reaction) 시험법은 잠재적인 탄저균 공격 이후에 오염 지역이 정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데, 환경청 발표에 따르면 이 테스트 방식은 보통 매일 30-40개의 환경 샘플을 분석할 수 있는 기존의 테스트 방식과는 다르게 하루에 수백 개의 샘플을 처리할 수 있다.

동 기관에 따르면, 상업적인 자동 시스템에 의존하고

자기 비드(magnetic bead)를 활용하는 이 급속변이 방식은 공기, 필터, 지표면, 및 수중 샘플에서 10개 이내의 탄저균 포자를 감지해 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시험법은 24개의 일단의 샘플에 대하여 전체 테스트 시간을 24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시켰고, 첫 테스트 그룹을 거친 후 절차는 각 다음 샘플 그룹의 경우 3-4시간 정도를 요구한다.

이 시험법은 미국 에너지국(Energy Department) 산하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 의해 개발되었다.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release : 2011. 3. 7)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3. 8)

미국 천연두 전문가, 추가적인 천연두 연구의 부당성 제기

한 저명한 천연두 전문가는 새로운 의학 치료제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구입 가능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는 것에 바이오디펜스 계획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생물보안센터(Center for Biosecurity)는 “이미 구입 가능한 2가지의 고효율 백신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완성된 것과 다름없는 2가지의 항바이러스제 연구가 완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결코 배포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새로운 백신 및 추가적인 항바이러스제의 연구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라고 천연두 관련 전문가인 D.A. Henderson이 *Biosecurity and Bioterrorism*에 기고한 말을 인용하여 전했다.

Henderson은 새로운 천연두 백신을 개발하는 것에 2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새로운 백신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에는 거의 5억 달러에서 7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비교해 보면, 이미 연방의 승인을 받은 백신 5천만 세트를 구입하는 것에는 1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Henderson의 추정으로는 같은 수의 doses를 새로운 백신으로 구입하면 최소한 25억 달러가 든다.

Henderson은 “우리가 감시, 봉쇄, 연구소 역량에 대한 국제적 및 국가적 대응 능력을 강화시킬 때, 우선적으로 천연두에 효과적인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입수 가능한 자원을 활

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물으면서 “기존의 살아 있는 천연두 바이러스를 보유하는 것은 이 문제에서 논외의 일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30년 전에 자연 상태에서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선언된 두창(variola) 바이러스를 살아 있는 균주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이 두 국가는 백신의 개선 및 기타 대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천연두 샘플의 지속적인 보유를 정당화해 왔다.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일부 인사들은 적대적인 국가들이 고전염성 병원균주를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염려한다.

5월에 열리는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는 러시아와 미국 두 나라에 두창 바이러스 균주를 완전히 폐기하는 최종 시한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UPMC Center for Biosecurity release : 2011. 3. 31)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4. 1)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2009년 페스트균 연구교수 사망원인 발표

Bloomberg에 따르면, 2009년에 University of Chicago의 한 과학자가 약화시킨 페스트균을 활용하여 백신을 연구하던 중에 사망했는데, 이는 그의 열악한 건강 상태 때문에 스스로 감염된 결과였다.

60세인 Malcolm Casadaban의 연구 대상이었던 약화시킨 페스트균(*Yersinia pestis*)은 인간에게 전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여겨 졌고, 당시에 그가 필요한 안전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2009년 9월 13일의 그의 죽음은 전염병 연구자들을 크게 당혹시켰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근 보도 자료에 따르면, Casadaban이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혈색소침착증(hemochromatosis), 즉 신체에 철을 과도하게 축적하는 질병으로 특히 페스트균에 취약했던 것으로 현재에는 연구진들이 믿고 있다고 전했다.

혈색소침착증은 거의 400명 중 한 명 꼴로 발견되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50%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

Casadaban이 연구했던 페스트균은 특정 단백질 즉, 이 박테리아가 붙어서 자기 생존에 필요한 철분을 소비

하는 데에 활용하는 단백질을 제거함으로써 유전적으로 약화되어 있었지만, Casadaban이 철분을 과도하게 만들어 냈기 때문에 페스트균은 제거된 단백질이 없어도 그의 신체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 있었다.

University of Chicago의 전염병 전문가인 Ken Alexander는 “이것은 우리가 이빨과 발톱을 다 뽑은 사자를 데리고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Casadaban 박사의 경우에, 이 사자는 이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철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Bloomberg는 매년 전 세계에서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페스트균에 감염되고 그 중 거의 90%는 신속한

확진 및 항생제 요법이라는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 살아 난다고 보도했는데, 이 질병은 잠재적인 생물테러(bioterrorism) 위협으로 여겨진다.

Alexander에 따르면, Casadaban의 사례는 페스트균의 변형 정도와 무관하게 이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Alexander는 약화시킨 질병인자를 활용하는 바이오디펜스 연구에 찬성하지만, 연구자들이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자신의 내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충고했다.

(Bloomberg : 2011. 2. 25)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3. 1)

미국 메릴랜드 주의 미공개 바이오디펜스 시설 부지에 대한 관심 고조

*Gazette*는 미국 메릴랜드 주의 한 단체가 그 수가 확실하지 않은 연구소들의 활동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주의 미공개 지역에서 탄저균 및 기타 치명적인 생물작용제를 다루는 시설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릴랜드 주 보건정신위생부(Health and Mental Hygiene Department) 산하의 비상대비대응연구소(Laboratory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Office)의 부소장인 Jim Svrjcek는 이 부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려면, 메릴랜드 주 의회가 주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이 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밀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밀폐연구소 시민자문위원회(Containment Laboratory Citizens Advisory Committee)를 이끌고 있는 Beth Willis는 “기업들은 분명히 독점 정보를 독자적으로 보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와 지방 정

부는 보건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하여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하며, “이것은 기본이다. 나는 왜 이러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메릴랜드 주 Frederick County의 지도급 지역 인사들은 2010년 11월에 민감한 생물작용제 연구 시설들과 시민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동 단체를 수립하고, 여러 바이오디펜스 시설들을 보유하여 군사 시설 너머에서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미 육군 Fort Detrick의 본거지이다.

2002년 이래 Svrjcek가 이끌고 있는 비상대비대응연구소는 그 주에서 생물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메릴랜드 주의 주도인 Annapolis는 현재 경찰이나 공무원만이 가지고 있는 동 단체 세부사항에 대해 “인명, 경제, 농업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고 있다.

Frederick 경찰서 부서장인 Dennis Dudley는 비상 사태 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생물작용제 부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험 단체 혹은 비주류 단체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면 생물작용제를 다루는 시설들보다 사람들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화생방 물질(biological, chemical or radiological material)을 다루는 개인이나 단체는 모두 당국에 위험 대응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Frederick County의 비상대비부(Emergency Preparedness Department)를 이끄는 Seamus Mooney는 이 County가 화생방 비상사태 대비책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Svrjcek에 따르면, Fort Detrick에 위치한 미 육군 전염병의학연구소(Army Medical Research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는 보다 강력한 보안책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비밀 엄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The Gazette* : 2011. 3. 28)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3. 30)

미국 환경감시단체 Tri-Valley CAREs, 로렌스리모어국립연구소의 바이오디펜스 연구 승인 판결에 항소

*Contra Costa Times*는 탄저균과 페스트균 같은 잠재적인 생물무기 물질을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로렌스리모어국립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계속 연구하도록 허락한 연방 법원의 판결에 한 단체가 항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감시 단체인 Tri-Valley CAREs는 오�클랜드 주의 미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이 연방 국가핵보안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하여금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연구시설에서 위험한 전염성 물질을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2010년 9월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중이다.

Tri-Valley CAREs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The 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향후 바이오디펜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환경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령하기를 바라고 있다.

연구소 대변인인 Steve Wampler는 감시 단체가 이 시설의 작업을 “생물무기 연구”로 규정짓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고, 오히려 연구진들이 기차역이나 기타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서 전염성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Wampler는 “우리가 시도하는 바는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생물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공격적인 생물학적 활동을 금지하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임을 강조했다.

Wampler는 상기 법원 판결이 연구소 내의 적절한 안전 조치를 승인했다고 말했는데, “이곳은 아마도 미국 내에서 가장 안전장치가 뛰어난 생물안전 3등급(BSL-3) 연구시설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안전 요원들이 있고 방벽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제한 조치가 있다” 라고 덧붙였다.

Tri-Valley CAREs의 대리인인 Scott Yundt에 따르면, 미 상설 에너지국(Energy Department)의 평가는 이 연구소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비록 그 가능성은 적을지라도 만일 실행된다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Scott Yundt는 이 평가가 “만일 그러한 일이 실현된다면 잠재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석

해 내지 못했다” 고 말했다.

(Suzanne Bohan, *Contra Costa Times* : 2011. 3. 12)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3. 14)

생물테러위협으로 기소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5월 재판 예정

South African Press Association은 미국과 영국에 위험한 생물작용제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여 기소된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자의 재판이 2011년 5월로 연기되었다고 보도했다.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하던 Brian Roach는 만일 400만 달러를 주지 않으면 두 국가에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을 퍼뜨리겠다고 이메일과 서면으로 영국 정부를 위협한 혐의로 2010년 2월에 체포되었다.

구제역은 비록 인간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소나 기타 동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이 동물매개(animal-carried) 병원균은 미국에서 위험한 생물작용제로 분류된다.

Roach는 2011년 2월에 첫 보석 신청을 내지 않았고 자신의 테러 혐의에 일부 이의를 제기하려 하였으며, 화기 불법 소지, 공갈, 자금 세탁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검찰당국(National Prosecuting Authority)의 대변인인 Mthunzi Mhaga는 당국에 소송 준비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하여 재판 날짜를 5월 10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Mhaga는 “이 소송은 연기되었는데……이는 경찰이

조사를 계속하고 또한 피고가 검찰청에 제출할 서면 진술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 일이 재판 기일까지 끝나기를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Roach는 Robert Mugabe 대통령의 명령으로 2000년에 강제로 소유지를 포기해야 했던 짐바브웨 백인 농부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보상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꾸몄으며, 겉으로 보면 그는 워싱턴과 런던이 농부들을 충분히 원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Roach는 “우리는 상습적인 범죄자들이 아니며, 단지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가들의 손에 놓인 현 상황의 희생자들일 뿐이다” 라는 이메일 메시지를 영국 정부에 보냈다.

South African Press Association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미국의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2월의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당국이 Roach의 주거지와 그 밖의 지역을 조사했지만 그에게 구제역을 퍼뜨릴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Mhaga는 Roach를 영국으로 인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런던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outh African Press Association/*New Age* :

2011. 3. 31)

(*Global Security Newswire* : 2011. 3. 31)